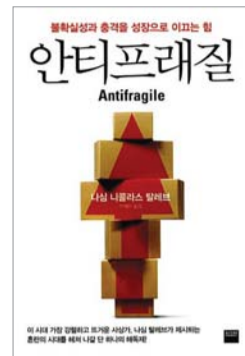


불확실한 시대... 건강한 생존·성장 위한 해법



리더의 책장

신현준 한국신용정보원장



안티프래질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 저, 안세민 역, 와이즈베리, 2만 8000원

작년 초 갑작스럽게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대유행으로 실물경제는 큰 타격을 받았고 투자시장의 지형도 크게 변했다.

급격한 유동성 증가로 주식을 비롯한 자산 가격은 폭등했고 포모(FOMO, Fear Of Missing Out)증후군으로 불안감에 빠진 개인 투자자들은 부동산, 주식, 암호화폐 등에 '영끌', '묻지마 투자'로 내몰리고 있다.

얼마 전 필자는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이 CNBC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이 끝나려면 "아직도 한참 멀었다"고 언급한 기사를 읽었다. 불확실성과 혼란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개인이나 기업, 더 나아가 사회와 국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저서 '블랙스완'을 통해 '서브프라임' 금융 위기를 예견하여 '월가의 현자', '월가의 노스트라다무스'로 불리우는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는 '안티프래질'에서 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탈레브는 "금융위기와 같은 꼬리리스크는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차라리 위기가 왔을 때 이익을 볼 수 있는 안티프래질한 체질로 바꾸라"고 조언한다.

'안티프래질'(antifragile)은 '프래질'(fragile, 부서지기 쉬운)에 대한 반대의 의미로서 탈레브가 만든 신조어이다. 위기나 충격을 받았을 때 버티는 강건함(robustness)을 뛰어넘어 오히려 더 강해진다는 개념으로 전 세계를 주목시켰다.

강력한 메시지로 내게 와 닿았다.

75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의 책이다 보니 단숨에 읽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여름 휴가기간을 활용하여 리스크 전문가인 탈레브의 통찰력 넘치는 분석과 탁월한 식견을 꼭 한번 만나보기를 권한다.

총 7권 2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책 전반에 걸쳐 안티프래질의 특성과 안티프래질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월가 노스트라다무스 탈레브, 안티프래질 체질 개선 조언 가변성, 불확실성 등 위기를 피하지 않고 성장 기회 활용

"바람이 훑발 하나는 꺼뜨리지만 모닥불은 살린다. (모닥)불이 되어 바람을 맞이하라". 이 책의 서문에 나오는 첫 문장이다.

바람이라는 충격에 연약한 훑발 하나는 무력하게 꺼지지만, 강건한 모닥불은 활활 타오른다. 건강한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는 안티프래질(강건한)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탈레브는 가변성, 무작위성, 무질서, 불확실성을 피하지 말고 그것을 겪어내고 더 강해지도록 활용하라고 한다. 이러한 것들에 노출될 때 더욱 성장하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오랜 세월 투자의 세계를 관찰하고 대규모 고객자금을 운용해 본 필자도 최근 '부의 계

단'(신현준 저, 매일경제신문사 출판)이라는 책을 발간했다. 투자에 입문하는 2030들에게 냉혹한 투자의 세계에서 생존하면서 성공하는 방법을 나누고 싶었다.

남들이 몰려가는 곳에 따라가서는 제대로 이익을 볼 수 없다는 것, 아는 곳에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투자하는 것, 투자 대안의 가치를 남보다 먼저 알아보고 싼 가격에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투자 기회는 버스와 같아서 계속 찾아온다는 것 등이다.

불확실한 시대에 올바른 지식과 실력으로 무장하고 때를 기다리면 기회는 계속 온다. 독자분들이 현명한 투자 의사결정을 이어가면서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부를 수확하고 경제적 독립과 자유를 누리기를 희망한다.

명저 '안티프래질'을 통해 불확실성과 혼란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해안을 얻게 되길 바란다.

-신현준 한국신용정보원장은 다음 글쓰는 이로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을 추천했다.

주말은 책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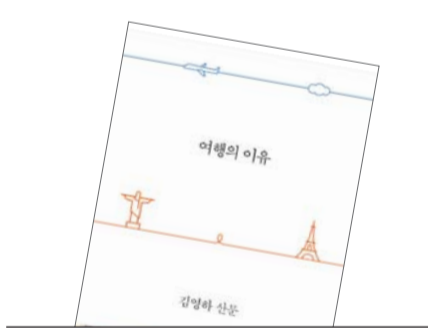
여행은 '즐거운 흑역사' 만드는 일

바야흐로 여행의 계절이다. 코로나 상황이 엄중해 당장 멀리 떠날 수 없으므로 각자 마음속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을 하나씩 떠올려보기로 하자. 필자의 경우 약 10년 전 친구와 무계획으로 간 지리산 둘레길 여행을 꼽았다.

출발하기 이틀 전, 도서관에서 우연히 국내 여행책 하나를 접어들었는데 거기에 전라북도 남원이 매력적으로 소개돼 꽂혀서 가게 됐다.

필자와 친구는 1박2일에 나온 '밥맛이 꿀맛인 민박집'을 중심으로 여행 코스를 짜기로 했다. 블로그 두어개 정도를 쓱 훑어보고는 지리산 둘레길, 춘향테마파크, 광한루 등을 일정에 넣었다.

너무 대중 알고 간 탓에 여정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필자를 전북 남원으로 인도한 여행책(제목이 기억이 안난다)의 저자는 지리산 둘레길 각 코스에 난이도에 따라 별점을 매겨놨는데 숙소 근처 지리산 둘레길 3코스에는 별



여행의 이유

김영하 지음/문학동네

두개가 그려져 있었다. 우리는 동네 마실쯤으로 여기고 별다른 준비 없이 길을 나섰다.

처음엔 평평한 산책로가 나와 가벼운 마음으로 걸었는데 웬걸, 가면 갈수록 험한 숲길과 가파른 산비탈이 이어져 정신이 아득해지기 시작했다. 이미 코스의 반 이상을 온 터라 돌아갈 수도 없었다.

필자는 편한 게 제일이라며 슬리퍼

를 신고 갔고, 친구는 사진 잘 나와야 한다며 원피스를 입고 갔는데 둘다 둘레길을 우습게 봤다가 큰코다친 것이다.

나중엔 거의 기어서 내려왔는데 우리와 반대방향으로 오고 있던 관광객(등산화와 등산복, 등산스틱 등으로 완전 무장함)들이 필자와 친구의 꼬락서니를 보고는 혀를 끝끝 찼다.

남이 보면 참 한심한 일이지만, 우리는 아직도 만나면 지리산 둘레길에 여행 갔던 이야기를 하며 중학교 2학년 애들처럼 길길대곤 한다.

'여행의 이유'에서 김영하 작가는 여행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여행의 성공이라는 목적을 향해 집을 떠난 주인공이 이런저런 시련을 겪다가 원래 성취하고자 했던 것과 다른 어떤 것을 얻어서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내게 여행은 '즐거운 흑역사를 만드는 일'이다.

216쪽, 1만3500원. /김현정 기자 hjk1@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역음/오월의

이주여성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대안'이자 돌봄노동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해결책'으로 국가가 전략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2000년대 이후 급증한 외국 여성과 한국 남성 사이의 국제결혼은 지방자치단체들의 '결혼보조금' 같은 정책에 힘입어 한해 3만건을 넘어서며 2005년 정점을 기록했다. 같은 해 한국 여성과 외국 남성의 혼인 수가 약 1만건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국제결혼 증가에는 제도적 지원과 함께 '국제결혼 중개업'이라는 상업적 요인이 작동했다고 볼 수 있다. '다문화'를 외치는 한국 사회의 실상은 '화합'이나 '공존'보다는 외국인 배우자를, 특히 결혼이주여성을 남성형돌봄 유지에 기여하도록 하며 한국 사회에 통합시키는 것에 가깝다고 책은 지적한다. 한국 사회가 불러들이고 쫓아낸 사람들의 이야기. 172쪽, 1만3000원.



호흡 공동체

전치형, 김성은, 김희원, 감미량 지음/창비

마스크 착용', '2m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비대면 모임' 등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새로운 명제가 사회관계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다. 공기의 위협에 겁먹은 사람들은 각자의 공기주머니 속으로 도피했다. KF-AD 마스크, 공기청정기, 비대면 배달 앱 등 과학기술이 마련해준 안전한 공간에 숨어, 바깥의 존재들과는 공기를 나눠 마시지 않았다. 코로나19 사태와 폭염의 재난을 거치며 우리는 바이러스를 품은 공기, 뜨거운 열을 품은 공기가 사회의 취약한 고리를 가장 먼저 파고 든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공기문제가 교육, 노동, 젠더, 인종의 문제, 나아가 차별과 혐오의 문제와 연결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혼자 쉬는 숨이 없듯 공기는 각자의 코앞에만 있지 않다. 저자들은 각자도생의 과학이 아닌 공동체를 위한 과학에 힘을 쏟아야 할 때라고 말한다. 232쪽, 1만7000원.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독점 그만!' 구글, 美 주정부 30여곳에 반독점 소송당해
▲IMF, G20에 백신공급과 경제회복 등 '투트랙'대책 요구 /사진 뉴시스

▲유럽의회, 빈과일본 폐간에...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추진
▲마이니치 "日정부, 文대통령 올림픽 방일 시 정상회담 검토"



▲日 코로나·폭우·산사태까지... 올림픽 앞두고 악재 잇따라 /사진 뉴시스
▲트럼프 "히틀러, 좋은 일도 많이 했다" 찬양